

스리랑카 성지순례 4일



1일 --도착 - 대한 항공 - 04.30AM

카투나야케 국제공항 - 아누라다푸라 - 담불라

카투나야케 국제공항 도착 후 아누라다푸라로 이동. 아누라다푸라에서 관광. 아누라다푸라에서 관광 후 담불라로 이동. 현지 식당에서 점심 식사.

서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 현지식, 중 : 현지식, 석 : 호텔식)

아누라다푸라 - 아누라다푸라 신성 도시는 '깨달음의 나무(tree of enlightenment)'인 보리수 주변에 건설되었다. 이 보리수의 가지는 아소카(Asoka) 왕의 딸이며 비군지의 계율을 만든 상가밋타(Sanghamitta)가 기원전 3 세기에 가져왔다고 한다. 아누라다푸라 신성 도시는 1,300 년 간 실론(Ceylon, 지금의 스리랑카)의 정치적·종교적 수도였으나, 993 년 타밀족(Tamil)의 침략을 받아 쇠퇴했다.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이 유적은 궁전, 수도원, 그리고 다른 유적들과 함께 한동안 정글 숲에 묻혀 있었으나 지금은 다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2 일-담불라 - 시기리야 - 포론나루와 -담불라

호텔 조식 후, 시기리야로 이동. 시기리야 후. 현지 식당에서 점심 식사

점심 식사하고 포론나루와로 이동. 포론나루와 보고 담불라로 돌아와요.

서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호텔식)

시기리야 - 시기리야(Sigiriya) 고대 도시는 아버지를 살해한 왕 카사파 1 세(Kassapa I, 477~495)에 의해 세워졌던 수도의 폐허이다. 이 유적은 가파른 경사면과 사방을 에워싼 정글을 내려다보며 서 있는 높이 370m 의 '사자 바위(Lion's Rock)' 화강암 봉우리 정상에 있다. 벽돌과 석회 반죽으로 지어진 일련의 방들과 계단들은 거대한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듯한 형상이며, 이 방들과 계단들을 통해 유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폴로나루와 - 993 년에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가 파괴된 이후부터 건설된 폴로나루와 고대 도시는 스리랑카의 두 번째 수도였다. 폴로나루와 고대도시에는 출라 왕조(Cholas)가 세운 브라만교의 기념물뿐 아니라, 12 세기에 파라크라마바후 1 세(Parakramabahu I)가 만든 전원도시(garden-city)의 놀라운 기념물 폐허가 남아 있다. 폴로나루와 고대 도시는 몇 개의 문명에 대해 말해 주고 있는데, 특히 브라만교를 신봉한 정복 세력 출라 왕조의 문명과 12 세기와 13 세기 동안 독립을 유지했던 신할리족(Sinhalese)의 문명을 찾아볼 수 있다. 12 세기에 과대 망상적인 군주 파라크라마바후 1 세가 건설한 이 어마어마한 수도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도시 건설 중 하나이다. 이는 그 특별한 규모 때문이기도 하고 건물과 자연환경의 매우 특수한 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3 일 - 담불라 - 캔디

호텔 조식 후, 담불라 동굴 사원 후, 캔디로 이동. 현지 식당에서 점심 식사.

아름다운 캔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뷰포인트, 부처님 치아사리가 모셔진 불치사, 민속공연 관람.

서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석 : 호텔식)

담불라 - 담불라 유적군은 스리랑카와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종교의 예술성과 표현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발굴된 석굴, 벽화, 불상과 신상 등은 크기나 보존 상태로 볼 때 상당히 독특하다. 사원에는 스리랑카 캔디(Kandy) 학파의 18 세기 예술의 중요한 걸작들이 있다.

12 세기 말에 이르러, 니산카 말라(Nissanka Malla) 왕에 의해 상층부에 있는 동굴 바위에 조각을 하는 기법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그보다 앞선 암각술을 반영한 것으로 오늘날과 같은 일반 형태와 배치가 당시부터 있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석굴 발전의 주요 단계는 오랜 전통을 따르던 18 세기에 행해졌다. 이때에 상층부가 복원되고 새로 단장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변화는 이미 채색된 석굴의 표면에 벽화를 그리거나 덧칠하는 18 세기 후반의 캔디 학파의 양식을 따른 것이다. 또 당시에 석굴에 있던 인자한 불상 그림에 본래 세부 형상이나 도해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덧그렸다. 그리고 화면 벽을 다시 세우고 바깥쪽에 베란다를 만들기 위해 지붕을 얹었다.



캔디 - 거대한 복합 단지인 캔디 신성 도시는 키르티 스리 라자시마(Keerti Sri Rajasimha) 시기에 재건축하였으며, 궁정과 불치사를 나란히 배치한 건축 공학 형태를 뚜렷이 보여 준다. 불치사, 궁정, 캔디 신성 도시는 인류가 창조한 위대한 종교 중 하나인 불교 전도 역사와 밀접하고도 명백한 연관이 있다. 캔디의 불치사는 칼링가(Kalinga, 인도의 오리사(Orissa) 주)에서 스리랑카로 건너온

석가 치아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세웠으며, 불교의 종교 제례를 풍부하게 보여 주는 증거이다. 석가 치아 사리는 스리 메가바나(Sri Meghavanna, 310~328) 치세 동안에 마지막으로 이전되었다.

14 세기에 건설한 캔디 시는 스리랑카의 '문화 삼각지(Cultural Triangle)' 최남단에 있다. 캔디는 1592 년에 왕국의 수도가 되었는데, 이 기간은 수많은 섬 사람이 유럽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전투에 밀리면서 해안 지역에서 점차 내륙으로 후퇴하던 어려운 시기였다. 캔디 시는 영국 군대가 1815 년 2 월 14 일에 상륙할 때까지 오랜 시간 싱할라의 독립 요새 중 하나로 남아 있었다. 캔디 시는 비말라 다르마 수리야 1 세(Vimala Dharma Suriya, 재위 1591~1604)부터 스리 위크라마 라자싱헤(Sri Wiekrama Rajasinghe, 재위 1798~1815) 시절까지 왕권의 마지막 도읍이었다.



4 일 - 캔디 - 콜롬보 -카투나야케 국제공항 (출발)

호텔 조식 후, 콜롬보로 이동, 부처님 왕림지인 켈러니야 사원 등 콜롬보 시내관광. 현지 식당에서 점심 식사.

공항으로 이동 후 콜롬보 출발.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석 : 기내식)

출발 - 대한 항공 - 19.00PM